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12. 30.(목) /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해외건설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성익, 사무관 이정식, 주무관 이주원 • ☎ (044) 201-3517, 3522 	
		해외건설지원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최정민, 사무관 권지현, 이덕원 • ☎ (044) 201-3527, 3532 	
	기획재정부	국제경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종훈, 사무관 염철민 • ☎ (044) 215-7630, 7631 	
	해외건설협회	아시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장 김종국, 과장 최미동 • ☎ (02) 3406-1049, 1020 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3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0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코로나-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... 2년 연속 300억불 이상

-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해외건설협회(회장 박선호)는 2021년 해외 건설 수주액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-19 상황 속에서도, 올해 초 대외경제장관회의(1.11)에서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불을 초과한 306억불로 집계되어,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
< 참고 : 2010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현황 >

구 분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수주액(억불)	716	591	649	652	660	461	282	290	321	223	351	306
수주건수(건)	593	625	620	682	708	697	607	624	662	667	567	501

- 우리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10년 700억불 돌파 후 '14년까지 매년 500억불 이상을 기록해왔으나, 이후 유가 하락 등 대외여건 변화로 300억불 내외의 수주 실적을 보였다.
 - 특히, 작년부터 코로나-19 위기 속에 저유가, 세계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발주공사 감소, 국가별 방역 강화 등에 따라 수주에 부정적 전망이 있었다.
 - 그러나, 수주지역·공종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역량 강화 노력과 '해외수주 활력 제고·보완 방안'(21.7, '21.12 / 대외경제장관회의) 마련, 팀코리아(Team Korea)를 통한 정부의 전방위적 수주 지원 등에 힘입어 올해에도 300억불 이상의 수주 실적을 이어나갔다.

□ 2021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,

- 총 318개사가 91개국에서 306억불(501건)을 수주하였다.
- 지역별로는 중동(37%), 아시아(30%), 유럽(15%), 북미·오세아니아(13%) 순으로 중동지역 수주실적이 가장 높았으나, 북미·오세아니아(620%↑), 유럽(188%↑)이 전년 대비 크게 반등하는 등 수주지역 다변화가 이뤄졌다.

< 참고 : 2021년 지역별 수주현황 >

구 분	2021		2020		전년 대비 증감률(%)
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
중 동	11,224	36.7	13,297	37.9	-15.6
아시아	9,256	30.2	11,576	33.0	-20.0
유럽	4,604	15.0	1,596	4.5	188.4
북미·오세아니아	3,934	12.8	546	1.6	619.8
중남미	1,399	4.6	6,918	19.6	-79.8
아프리카	199	0.7	1,196	3.4	-83.3
합 계	30,616	100	35,129	100	-12.8



- 공종별로는 산업설비(플랜트)가 높은 비중(58%)을 차지하였으며, 다음으로 토목(19%), 전기(10%) 등의 순이었다.

- 산업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4.0% 감소에 그쳤으나, 토목·건축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(토목 40%↓, 건축 47%↓) 하였고, 전기의 경우 대형 해저 송전공사 수주에 힘입어 전년대비 크게 증가(352%↑)하였다.

< 참고 : 2021년 공종별 수주현황 >

구 분	2021		2020		전년 대비 증감률(%)
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
산업설비	17,891	58.4	18,636	53.0	-4.0
토목	5,859	19.1	9,838	28.0	-40.4
전기	3,089	10.1	683	1.9	352.2
건축	2,648	8.6	5,029	14.3	-47.3
용역	1,100	3.7	855	2.4	28.6
통신	29	0.1	88	0.4	-66.6
합 계	30,616	100	35,129	100	-12.8



□ 올해 해외건설 수주사업 중 특징적인 사업을 소개하면,

- 수주금액 기준 최대 규모 공사는 사우디 ‘자푸라 가스처리시설’ (28.8억불)로, 이는 코로나-19 및 저유가 영향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사업이 최근 유가 회복세 등 중동 지역 발주 재개에 따라 수주 되었으며, 사우디 최초의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한 의미가 있다.

* 사우디 가스처리시설(12.3억불, 삼성ENG / 16.5억불, 현대건설·현대ENG) : 가스 처리, 부대시설 건설

- 투자개발형(PPP) 사업에서는 호주의 ‘도로터널 건설사업(North East Link)’ (23.8억불)이 눈에 띈다. 이 사업은 빅토리아주 최대 규모의 도로 터널 건설 사업으로, 우리 기업과 글로벌 건설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였다. 이러한 대규모 사업 수주에 따라, 우리나라의 투자개발형 수주 비중이 10.2% (‘20년 투자개발형 수주 비중 : 1.8%)로 대폭 증가하였다.

* 호주 North East Link(GS 건설 외 호주·네덜란드 기업 등) : 도로·터널 건설 및 운영·관리

- 또한, 노르웨이 고속국도 건설 사업(SK에코플랜트)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9월) 후 금융 등 후속 협의 중으로, 내년의 PPP 수주 지역 다양화도 기대된다.

- UAE의 ‘초고압직류 해저 송전공사’(22.7억불) 사업도 눈에 띈다. 이는 설계·조달·시공(EPC: 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), 운영(O&M: Operation & Maintenance) 및 금융 조달 등 팀 코리아(Team Korea) 동반진출 사업으로 수주한 의미가 있다.

* UAE 초고압직류 해저 송전(삼성물산 EPC, 한전 O&M, K-EXIM 금융) : 전력 변환소 및 송전망 건설

- 이외에도, 폴란드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(13억불, 현대ENG, 기본설계 연계사업), 싱가포르 도시철도(MRT, Mass Rapid Transit) 건설사업(총 13.9억불, 대우건설·동아지질·삼성물산), 괌 복합화력발전 공사(5.7억불, 두산중공업), 페루 친체로 국제공항 사업관리(PMO, Project Management Office) 수주에(‘19) 이은 공항 건설(1.5억불, 현대건설) 등 지역별 주요 사업 수주를 이루었다.

-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“코로나-19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간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300억불 수주가 가능했다”고 평가하면서,
 - “내년에도 수주 모멘텀이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수주 지원, Team-Korea 플랫폼 구축, 금융·투자 및 법률 자문 지원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고,
 - 투자개발형사업(PPP), 건설사업관리(PM)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과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 건설정책과 이정식 사무관(☎ 044-201-35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